

2015년09월02일년 수능(생활과윤리)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20문제】 과목 구분 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⑤	⑤	④	②	①	⑤	③	④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③	⑤	①	④	②	①	①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 · 오답 · 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20문제)

1.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낙태는 나쁘다.”라는 진술은 낙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해. 왜냐하면 그러한 진술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을: 너는 윤리학이 당위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우리는 객관적 도덕 원리를 정립함으로써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
병: 나도 을의 입장에 동의해. 하지만 낙태와 같은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고려하면서 도덕 규범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기〉

- ㄱ. 갑은 각 사회의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강조한다.
ㄴ. 을은 도덕 판단의 준거와 행위의 정당성 확보를 강조한다.
ㄷ. 병은 윤리학과 인접 학문들의 학제적인 연계를 중시한다.
ㄹ. 을, 병은 도덕 판단을 위한 도덕규범의 필요성을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부모는 자녀 출산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은 물론이고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을: 유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갑: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 개량된 능력을 갖고 태어난 미래 세대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어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생학적 조치를 통해 미래 세대가 동의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기획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 ① 유전자에 대한 어떠한 인위적인 개입도 금지되어야 하는가?
② 부모는 자녀 출산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가?
③ 부모는 유전자 개량을 통해 미래 세대의 삶을 기획해야 하는가?
④ 미래 세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우생학적 조치를 허용해야 하는가?
⑤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량된 미래 세대는 자유를 박탈당하는가?

3.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삶이 일종의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인간 존재를 타인과 결합시키는 능동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고립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사랑에 있어서 두 존재는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 있다.

〈보기〉

- ㄱ.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ㄴ. 사랑은 상대방이 지닌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ㄷ.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ㄹ. 사랑은 상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4.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우리는 부패를 조장하는 관행을 법적 제재로 척결하려 노력해 왔지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치적 투명성을 정착시키는 사회적 자본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주로 신뢰, 규범, 관용 등 도덕적 자원들로 구성됩니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공공 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시민 결사체들을 통해 의견 대립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킵니다. 그 결과 반칙과 부패는 감소하고, 호혜성과 생산성은 증가합니다.



- ① 사회적 자본은 시민의 청렴성과 연대의식을 함께 강화시킨다.
②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차단이 사회적 자본 형성의 선결 조건이다.
③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질수록 사회 제도 개혁은 용이해진다.
④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정치적·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다.
⑤ 처벌보다 자율적 규범의 내면화가 부패 방지에 더 효과적이다.

5.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가)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이다. 나는 미미한 존재로 그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천지의 기운[氣]을 나의 몸으로, 천지의 이치[理]를 나의 본성으로 여긴다.
(나)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겨나는[生] 까닭에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멸하는[滅] 까닭에 저것이 사멸한다.

① (가)는 만물이 지닌 생명력을 천도(天道)의 도덕적 표현으로 본다.

② (나)는 만물의 변화는 물질적 요소의 이합집산일 뿐이라고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천지를 가치중립적인 물리적 대상으로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천지를 질서가 없는 무위(無爲) 체계로 본다.

⑤ (가), (나)는 만물을 연기(緣起)에 의한 상호 의존적 존재로 본다.

6.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사회 내의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기 쉽다.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은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비판적 태도를 말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집단에 대한 개인의 헌신이 지닌 맹목적인 성격이야말로 도덕적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대로 집단의 권력을 행사하는 토대가 된다.

— < 보 기 > —

ㄱ.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적인 사회 강제력을 권고한다.
ㄴ. 집단 간의 관계는 정치적인 힘의 비율에 의해 수립된다.
ㄷ. 집단의 도덕성은 집단 내 구성원들의 도덕성에 비례한다.
ㄹ. 집단 간 세력 불균형은 사회 갈등과 부정의를 지속시킨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7.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는 정치적 냉소주의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게 되면 정치 권력의 부패와 전횡을 막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제도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어떤 서양 사상가는 “영국 인민은 선거할 때만 자유롭고, 선거 후에는 다시 노예가 된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집회에 정기적으로 모여 스스로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집회에 모이기는 힘들지만, 이 사상가의 주장에 담긴 취지를 구현할 방법을 언론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언론 매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수록 ㉠ …(후략)…

① 의견 수렴 매체의 단일화로 여론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② 시민의 의사소통 감소로 소모적 갈등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③ 공적 영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④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사적 영역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⑤ 정부가 시민을 대신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선왕(先王)이 예의(禮義)를 제정한 것은 백성들에게 구별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농부는 밭을 갈고, 상인은 물건을 팔며, 사대부는 정무(政務)를 담당한다.
을: 신(神)은 만사(萬事)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각각의 소명(召命)을 지정하였다. 우리는 신의 축복에 의해 양육되고, 우리의 노동도 신의 축복에 의해 번창한다.

① 갑은 재화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는 동시에 절제할 것을 강조한다.

② 을은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한 직업 생활을 강조한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인위적 규범에 따른 직분의 구별을 주장한다.

④ 을은 갑과 달리 부의 축적이 직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⑤ 갑, 을은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됨을 주장한다.

9.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정보는 정보 생산자의 창작물이므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생산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설령 정보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라도 정보 생산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을: 정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정보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정보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므로, 경제적 약자도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를 해주어야 한다.

- ① 갑은 경제력 차이에 따라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보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생산된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을은 공유 자산으로 본다.**
- ④ 갑, 을은 정보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가)

갑: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고,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을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
을: 서양의 도덕은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다. 따라서 생태계 파괴는 현재와 미래의 인간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병: 윤리의 확장은 생태학적 진화의 과정이며 생태계 모든 구성원들의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의 윤리인 대지의 윤리에 이르게 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보기〉

ㄱ. A: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ㄴ. B: 인간은 이익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ㄷ. C: 동물 보호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 과제로 성립 가능하다.
ㄹ. D: 인간 간의 의무를 넘어서 새로운 도덕 원리가 요청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 [\[다운로드\]](#)

11. 다음 가상 편지에 제시된 전통 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 부친의 부고(訃告)를 접하고 눈앞이 캄캄했다네. 자네는 성복(成服)하기 전에 곡음(哭泣)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진(氣盡)하면 아랫사람에게 대신 곡을 하도록 하거나. 장사 지내기 전에는 정해진 때가 없이 곡을 하고, 졸곡(卒哭)한 뒤에는 아침과 저녁 두 번만 곡을 해도 된다네. …(후략)…

- 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종적인 혈연관계가 소멸되는 의례이다.
- ② 자기 존재의 근원인 시조(始祖)를 추모하고 보은하는 의례이다.
- ③ 기성 사회로 통합되어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는 의례이다.
- ④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한 존재에게 효(孝)를 표현하는 의례이다.**
- ⑤ 남녀가 서로 결합하여 가계(家系)를 잇겠다고 서약하는 의례이다.

12.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종교는 궁극적 의미와 가치를 다루고, 과학은 실험 영역에서 사실과 이론을 다룹니다. 도덕과 과학이 서로 구분되지만 충돌하지 않고 각각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듯이, 종교와 과학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갑

종교는 과학의 맹목적 환상과 잘못된 절대성을 정화하고, 과학은 종교의 오류와 미신을 정화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과 종교는 서로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여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을

- ① 갑은 과학이 종교를, 종교가 과학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② 을은 종교와 과학이 상보적인 관계로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종교적 믿음이 과학적 사실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한 영역의 지식만 가치 있다는 견해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종교와 과학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13. 현대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유일한 근거로 한다.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하는 절차의 규칙을 위반하지만 사실이 불행일 수는 있으나 불공정하지는 않다.
을: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이다.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 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다루는 제도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합리적 개인들이 유불리를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 ① 갑은 정의 원칙이 가상 상황에서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 ② 을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공정한 재분배에 항상 앞선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소유권이 보장되면 균등 분배가 실현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정의 원칙은 다수결 절차에 따라 도출된다고 본다.
- ⑤ 갑은 최소 국가를, 을은 복지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

1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법을 준수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여 수익을 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를 향한 기업인의 선의가 사회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기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경영을 통한 재무적 성과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인권, 환경 등의 개선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공익 증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목적인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학자의 견해가 ㉠ 고 생각한다.

- ① 기업의 책임과 주주들의 이익 증진은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기업의 이윤 추구와 공익이 양립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공동선의 추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 ④ 기업의 공익 활동이 기업 경쟁력 상실의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합법적인 경영이 합리적인 이윤 추구의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15.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인민주권이 인정되는 나라에서는 모든 개인이 권력을 평등하게 나누고 나라일에 참여한다. 보통선거로 뽑힌 주민 대표들이 주민의 이름으로, 주민의 직접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을: 하나라 결왕과 은나라 주왕이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백성을 잃은 것은 그들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천하를 얻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백성을 얻는 것이 곧 천하를 얻는 것이다.

(나)

갑, 을의 정치사상적 입장을 탐구한다.

A

예

B

아니요

C

예

갑의 입장

을의 입장

<법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정치사상적 입장

<보기>
ㄱ. A: 정치 권력은 피치자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가?
ㄴ. B: 정책 결정에서 피치자의 복리(福利)를 추구해야 하는가?
ㄷ. C: 위정자는 피치자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ㄹ. C: 가족 사랑의 원리(親親)를 정치에도 적용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16.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자신의 몸을 닦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正心].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誠意].

(나)

사람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에 대해 알려하는가?

- ① 마땅히 애도해야 하는 일인 동시에 자연에 순응하는 과정이다.
- ② 자신의 업(業)에 의해 또 다른 삶을 결정짓는 윤회의 과정이다.
- ③ 사계절의 운행과 같이 기(氣)가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이다.
- ④ 고통 없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 ⑤ 불멸의 영혼이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과정이다.

- 5 / 6 -

17.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예술은 드러내고 예술가를 숨기는 것이 예술의 목표이다.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불필요하다. 아름다운 사물을 오직 아름다움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을: 예술은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다. 예술은 오직 인류애를 위한 것이며, 예술의 목적은 미(美)도 아니고 쾌락은 더더욱 아니다.

— < 보 기 —

ㄱ. 갑은 예술에는 예술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예술 활동에서 미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선(善)을 증진하는 예술을 좋은 예술로 본다.
ㄹ. 갑은 예술의 독립성을, 을은 사회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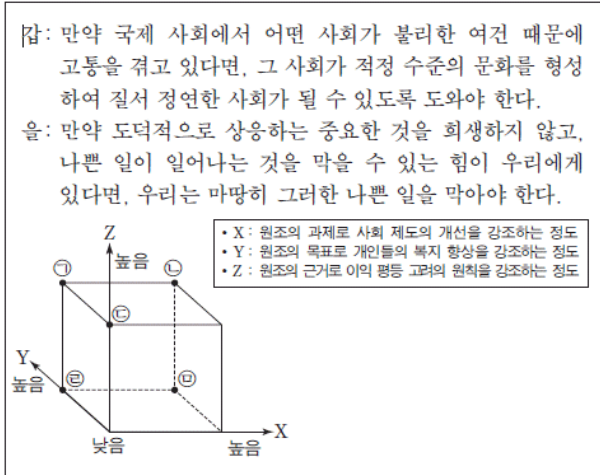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8.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세계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란 모든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용어의 중복일 따름이다.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국가들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공화국으로 전환한 계몽된 자유 국가들이 연방을 결성하고, 호혜적인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를 확정해야 한다.

- ① 자유 국가들 간의 연방 단계에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②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을 규정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 ③ 도덕적 입법의 한계를 세계 정부의 강제력으로 보완해야 한다.
- ④ 세계 평화의 정착을 위해 개별 국가의 주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 ⑤ 세계 평화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나 정치적 의무로 설정해야 한다.

19. 갑 사상에 비해 을 사상이 갖는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ㄱ)~(ㄹ)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ㄹ)

20.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친애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다.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자는 현자(賢者)가 아니다. 이(利)와 해(害)를 구별하는 자는 군자(君子)가 아니다. 명성을 좇아 참된 자기를 잃은 자는 선비[士]가 아니다.																												
(나)	<table border="1">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A)</td><td></td><td></td></tr> <tr><td></td><td>(B)</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가로 열쇠] (A): 엘리야데가 제시한 '성스러움의 드러남'이라는 개념 (B): '자신을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함'을 뜻하는 사자성어</p> <p>[세로 열쇠] (A): 개념</p>												(A)				(B)												
				(A)																									
	(B)																												

- ① 좌망(坐忘)을 통하여 일체의 분별 의식에서 벗어난 존재이다.
- ② 지혜를 갖추고 자비를 베풀어 중생(衆生)을 제도하는 존재이다.
- ③ 사욕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 도덕적 인격을 완성한 존재이다.
- ④ 덕과 형벌을 병행하여 왕도(王道)의 이상을 구현하는 존재이다.
- ⑤ 허심(虛心)에서 깨어나 모든 망상과 번뇌로부터 초월한 존재이다.